

#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

천 상 병

강하게 때론 약하게  
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 
아니다! 그런 것이 아니다!

보이지 않는 길을  
바람은 용케 찾아간다.  
바람길은 사통팔달이다.

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 
바람은 바람길을 간다.  
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.

# 푸른 것만이 아니다

천상병

저기 저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  
자꾸 보고 또 보고 보는데  
푸른 것만이 아니다.

외로움에 가슴 조일 때  
하염없이 잎이 떨어져 오고  
들에 나가 팔을 벌리면  
보일 듯이 안보일 듯이 흐르는  
한 떨기 구름

삼월 사월 그리고 오월의 신록(新綠)  
어디서 와서 달은 뜨는가  
별은 밤마다 나를 보던가.

저기 저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  
자꾸 보고 또 보는데  
푸른 것만이 아니다.

# 마음 마을

천 상 병

내 마음의 마을을  
구천동(九千洞)이라 부른다.  
내가 천씨(千氏)요 구천(九千)만큼  
복잡다단한 동네다.

비록 동네지만  
경상남도보다 더 넓고  
서울특별시도 될 만하고  
또 아주 조그만 동네밖에  
안 될 때도 있다.

뉴욕의 마천루(摩天樓) 같은  
고층건물이 있는가 하면  
초가 지붕도 있고  
태고 시대의 동굴도 있다.

이 마을 하늘에는  
사시장철 새가 날아다니고  
그렇지 않을 때는  
흰구름이 왕창 덮인다.

이 마을 법률은  
양심이 있을 뿐이고  
재판소 따위로  
양심법재판소 밖에는 없다.

여러 가지로 지적하려면  
만자(萬字)도 모자란다.  
복잡하고 복잡한 이 마음 마을이여.

# 날 개

천 상 병

날개를 가지고 싶다.  
어디론지 날 수 있는  
날개를 가지고 싶다.  
왜 하느님은 사람에게  
날개를 안 다셨는지 모르겠다.  
내같이 가난한 놈은  
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뿐인데  
나는 어디로든지 가고 싶다.  
날개가 있으면 소원 성취다.  
하느님이여  
날개를 주소서 주소서.....

## 만 추(晩秋)

천 상 병

내년 이 꽃을 이을 씨앗은  
바람 속에 덧없이 뛰어들어 가지고  
핏발 선 눈길로 행방을 찾는다.

숲에서 숲으로, 산에서 산으로  
무전여행을 하다가  
모래사장에서 목말라 혼이 난다.

어린양 한 마리 돌아오다  
땅을 말없이 다정하게 맞으며  
안락의 집으로 안내한다.

마리아.  
나에게도 이 꽃의 일생을 주십시오.